# 나주시, 켄텍 부설 '에너지영재교육원' 설립 확정

## 국내 최초·유일 에너지 특화 영재교육원 출범 가시화

##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 본격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부설 에너지영재교육원 설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미래 에너지와 첨단산업을 이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6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이사회를 열고 켄텍 부설 에너지영재교육원 설치와 운영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에너지영재교육원은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4~6학년)과 중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에너지 분야 특화 영재교육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원은 미래 에너지 분야 핵심 인재를 대학이 직접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소외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에너지영재교육원 설립은 나주 시민들의 오랜 요구를 바탕으로 나주시의회의 발의와 나주시의 주도하에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추진됐으며 전라남도교육청 승인과 나주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관계 부처의 협조를 거쳐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에너지영재교육원 운영 예산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논의 끝에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시, 전라남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은 교육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사업은 나주시 교육특구 사업과 나주교육지원청의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추진된다.

에너지영재교육원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설명회, 공개 시범 수업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 선발은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재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교양, 기초, 탐구 과정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방침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 진도군, 설 명절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 취약계층 위한 관내 단체·기관 등의 지정 기탁품 전달

진도군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단체와 기관 등에서 기탁한 지정 기탁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설 명절 나눔은 지역사회의 단체와 기관,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기탁된 물품은 식료품, 생필품, 명절 위로금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다.

주요 기탁 물품은 ▲'K-water 진도수도지사' 이불 50채 ▲(사)대한한돈협회 진도지부 생돈육 세트 318박스 ▲한전KPS 나누미지원사업 백미(10~20kg) 55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 명절 위로금 123가구 1,23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한과선물 20세트 ▲한국전력공사진도지사 과일 10세트 ▲지산면 이장단 감귤 36박스 ▲지산면 새마을부녀회 떡국 나눔 행사 ▲군내면 새마을부녀회 떡국 밀키트 50박스 ▲의신면 청년회 떡국 밀키트 100박스 등이 있다.

약 20개의 단체, 기관 등에서 지정 기탁한 다양한 식품과 물품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저소득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경로당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신속하게 전달돼 따뜻한 정을 더했다.

진도군은 각 읍면 사무소와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세심하게 발굴하고, 기탁자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부를 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의 확산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에도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 활동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순천시,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 지원

순천시가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임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협력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기준일 이전부터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다.

다만, 2024년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영체 등록 유지 여부와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은 4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며,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농어민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 카메라 뉴스

### 함평군, 설 맞아 '오늘도 무사go'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전남 함평군은 "설 명절을 맞아 함평공영터미널 일원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오늘도 무사go'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 기간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함평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터미널 이용객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도 무사go' 문구가 담긴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명절 연휴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 화순군, 청소년 주도 재난 안전 교육으로 대응 체계 강화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6일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체험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비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광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청소년 33명이 참여해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처치술을 배우는 '응급안전' ▲화재 시 소화기·완강기 사용법을 배우는 '화재안전' ▲침수공간 및 침수차량 대피 요령을 체험하는 '호우안전' 등 총 3개 과정의 재난대응 교육을 이수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 무안군, 설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개

무안군(군수 김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명절을 앞둔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군은 지난 6일 일로전통시장과 9일 무안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이와 함께 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 예방 캠페인과 물가 안정 캠페인도 병행해 진행했다.

/무안군 제공